



한국아나운서클럽회보

2021년 12월 15일

제 44 호

• 발행인 : 박찬숙 • 편집장 : 김성길
• 편집위원 : 채영신 이현우 황인우
권혁화 유지현 유영미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아나운서클럽 06544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270, 119-1102 E-mail annaclub7@naver.com ☎ 010-9025-4663

조심스런 10월 정례 모임, '축하와 격려'의 자리가 되다



아나운서클럽의 발전과 활기찬 새해를 기원하는 참석 회원들

축하와 격려, 덕담 속에 진행된 3분기 정례 모임은 저자들이 증정한 책과 논문에 대한 얘기를 나누며 아쉬움 속에 다음의 만남을 기약했다.

2면에 사진

2021 한국아나운서대상 대상 신용철 등 부문별 수상자 발표



2021 한국아나운서대상의 수상자가 발표됐다. 올해 대상의 영예는 SBS 신용철 아나운서가 차지했다. 아나운서클럽상에는 KBS 홍소연 아나운서와 대구CBS 지영애 아나운서가 선정됐고, 아나운서의 표상 고故 장기범 아나운서의 뜻을 기리고자 제정된 장기범상에는 MBC 낭독희팀과 박지영 KBS 방송작가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또한 공로상 부문에 MBC 강재형 아나운서, 특별상 부문에는 고故 김태욱(SBS) 아나운서가 수상자로 결정됐다. 이외에 앵커상 등 4개 부문 15명의 수상자도 발표됐다.

한국아나운서연합회(회장 KBS 김보민)는 회원사에서 각 부문 후보자를 추천받은 뒤 10개사 협회장들이 투표해 수상자들을 선정했다.

한편 한국아나운서연합회는 코로나19 새 변이 바이러스로 확진자 확산이 진행되는 상황을 고려해 시상식을 거행하지 않고 각 방송사별로 상패와 부상을 전달하기로 했다.

3면에 수상 소감

3분기 정례 모임, 10월 29일 퍼시픽호텔

반가운 얼굴들이 오랜만에 다시 만났다. 한국 아나운서클럽 3분기 정례 모임이 10월 29일 저녁 6시 서울 명동 퍼시픽호텔에서 열렸다.

지난 3월 5일 정기 총회와 6월 8일 황금메아리상 시상식에 이어 세 번째로 만난 이날 모임에서 박찬숙 회장은 “목을 길게 빼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 뵙기를 고대했습니다. 어려운 걸음을 해주셨는데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라고 개회 인사를 했고, 김동건 고문은 “비정상적인 일이 많은 시대이지만 아나운서만은 양심과 정의를 따라 방송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라고 축사를 했다.

코로나 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된 모임에서 40여 명의 참석 회원들은 올해 책을 펴낸 전영우 고문과 박찬숙 회장, 이종태, 박선영 회원, 강성곤 아나운서의 저술 관련 뒷얘기를 들으며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이종태 회원은 가슴 찡한 이야기를 해학적으로 풀어내며 흥을 돋워 수차례 박수를 받았다. 회장단은 박사 학위를 받은 유지현, 윤지영 회원에게 김규홍 책임 운영위원이 준비한 축하 선물과 꽃다발을 전달하며 노고를 치하했고, 학위 논문 주제에 대한 발표도 들었다. 클럽 모임에 처음 참석한 방남순, 임성민 회원의 자기 소개와 정홍숙 회원의 시낭송, 이후재 부회장의 독도 여행 후일담이 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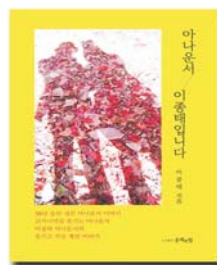
원주, 공주, 청주에서 참석한 회원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낸 참석자들은 '나도 한마디' 순서를 통해 각자의 근황을 소개했다.

이제는 '글'로 말하는 회원들... 다양한 분야의 에세이 출간

이종태(전 KBS) 회원이 세 번째 수필집 『아나운서 이종태입니다』를 11월 11일에 펴냈다. 38년간의 아나운서 생활을 되돌아 본 자전적 수필집으로, 방송 생활의 에피소드를 진솔하고 재미있게 기술하고 있다.

『이래서 나는 박선영이 좋다』는 기자 출신 김태민 작가가 박선영(전 MBC) 회원의 철학과 소신을 객관적 시각으로 정리한 관찰 에세이다. 10월 5일에 출간됐다.

손석희(JTBC) 회원은 저널리즘 에세이 『장면들』을 11월 12일에 펴냈다. 한국 사회를 뒤흔든 사건의 중심에서 직접 하고 싶었던 말들을 정리한 책으로, 세월호 참사 현장을 지키며 유족들과 함께한 이야기, '태블릿PC' 보도 과정, 대통령 선거 등 방송 현장에서 있었던 에피소드 등을 담고 있다.



이종태(전 KB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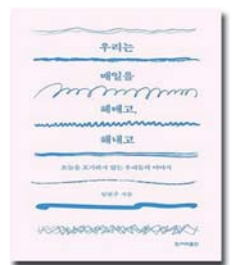
저자 김태민 기자



손석희(JTBC)



최현정(전 MBC)



임현주(MBC)

MBC 출신 최현정 회원은 『유일한, 평범』을 11월 17일에 출간했다. 아나운서 생활을 마치고 마흔 즈음 늦깎이 엄마가 된 저자가 '경단녀', '프리랜서', '육아' 등 낯설고 어색한 변화에 맞서 고군분투하며 느낀 단상을 기록한 마음 성장 에세이다.

MBC 임현주 아나운서가 10월 10일, 『우리는 매일을 헤매고 해내고 해내고』를 출간했다. 인간관계와 일터에서 '주연'과 '조연' 사이를 기웃거리는 우리 모두의 일상을 위한 위로와 응원의 에세이로 '오늘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송년사

올해의 끝이 활기찬 새해로 이어지길....



박찬숙 회장

- 1968년 문공부 공채 1기 KBS 입사
- 1992년 동서문학상 신인상
-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 저서
칼럼 『세상을 연다 사람들을 연다』
소설 『사막에서는 날개가 필요하다』
『가지꽃』 등

끝과 시작이 맞닿아 있는 게 어디 세월뿐이었습니까마는 한 해가 기울어 갈 때에는 언제나 연초에 했던 다짐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을 하곤 합니다.

아나운서클럽 회장이라는 무거운 자리를 맡고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것인가 생각했었습니다. 모이는 것조차 자유롭지 못한 코로나19 속에서도 서로의 안부를 묻는 카톡방은 큰 위안이 되었고, 제약 속에

모였던 몇 차례의 정례 모임은 반가움을 더한 소중한 만남이었습니다. 그 반가운 만남 속에 대선배님들을 모시는 자리가 채워지지 않는 것을 볼 때는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했습니다.

지난번 10월의 모임에서는 코로나19 국면에서도 침착하게 미래를 응시하며 정진하는 아나운서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박사 논문으로, 학술 서적으로, 또한 수필과 소설 작품으로 출간 릴레이를 펼친 선후배 저자들의 후일담과 소감을 들으면서 서로 축하하고 격려하는 흐뭇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울타리, 방송이라는 한 그릇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나운서 여러분!

우리는 반이 남아 있는 와인 잔을 보면서 '이제 반밖에 남지 않았어' 라는 시선으로 접근하기도 하고 '아직 반이나 남아 있어' 라며

여유있게 접근하기도 합니다. 한가지 사안을 놓고 부정적으로 볼 것이냐 긍정적으로 볼 것이냐의 해석과 관점을 얘기할 때 자주 쓰이는 비유이지요. 어느 것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둘다 맞는 말이지요. '서둘러야 돼, 시간이 없어' 하는 편이나 자신을 북돋우면서 '아직 여유가 있어, 시간이 있어' 하는 쪽이나 잘하고 싶은 마음의 출발은 같았을 것입니다.

올해의 끝은 새해로 이어집니다. 올해의 아쉬운 마음을 건강한 웃음으로 승화시켜 새해를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과 변함없는 정으로 더 자주 만나고 격려하면서 따뜻하고 활기찬 클럽으로 만들어 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포효하는 호랑이처럼 씩씩한 기상氣像과 당당한 발걸음으로 희망찬 새해 임인壬寅년을 여시기를 기원합니다.

“반갑습니다” “축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개회사와 축사를 하는 박찬숙 회장과 김동건 고문



저자 전영우 고문



이종태 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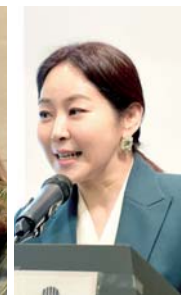
강성곤 아나운서



박선영 회원



유지현 회원



윤지영 회원



'나도 한마디' 코너에서 근황을 얘기하는 회원들



2021 한국아나운서대상 수상을 축하합니다

대상

SBS 신용철



“직분을 다하는 사람에게 보람을... SBS 라디오 방송 개시에 보내드리는 말입니다. 저의 사표이신 손석기 선배님의 음성으로 이 말을 들으면서 아나운서를 천직天職으로 여기고 지난 28년 동안 작게나마 구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과분한 이 상을 겸허히 받겠습니다. 아나운서여서 손쉽게 명리名利를 좇기보다 아나운서여서 지금도 묵묵히 직분을 다하고 있는 모든 아나운서들과 똑같이 나누어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용철 아나운서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3년 SBS

2기로 입사한 후, 뉴스와 교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최근에는 <톡톡 정보 매거진>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튜브 채널 <어서50쇼>를 통해, 코미디언 등 다른 분야 유명인들과의 색다른 만남으로 극과 극의 조합을 이루며 아나운서의 매력을 보여주고 있다. 책에 나온 요리를 직접 만들어 먹으며 그 장면의 주인공이 되어 책의 내용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코너 '맛있는 독서' 등 새로운 포맷을 창의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클럽상

KBS 홍소연



“상을 받게 되니 지난 25년간 아나운서 생활을 잘했나 돌아보게 되고, 제가 그동안 무슨 상을 받았었나 기억을 더듬어보게도 되네요. 거슬러 올라가 초등학교 시절 받았던 글짓기상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변변찮은 저이지만 '인기 투표 1위 해서 받는 상이다' 생각하고 앞으로도 아나운서 생활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소연 아나운서는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1997년에 KBS 공채24기 아나운서로 입사한 이래 <빅데이터로 보는 세상>, <930 뉴스>, <인간극장>등을 진행했다. 특히 2003년부터 2019년까지 16년 동안 KBS 제3라디오의 <사랑의 책방>을 진행하면서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를 위한 다양한 책 정보를 제공하며 청취자와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현재 KBS 아나운서2부 부장으로, 아나운서 선배들의 소통을 위해 힘쓰고 있다.

장기범상

MBC 낭독회팀



다양한 작가들과 함께 하는 무대를 통해 아나운서들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활동 영역을 넓혀왔다.

MBC 낭독회팀은 출판사 문학동네와의 협업으로 2018년부터 매년 연말 낭독회 '우리들의 읽는 밤'을 열고 있다. MBC 아나운서들이 직접 기획하고 연출하는 낭독회로, 좋은 문학 작품을 선정해 문학적 거장부터 신예까지

장기범상

KBS 박지영 작가



“부족한 제가 분에 넘치는 상을 수상하게 돼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말 지킴이라는 귀한 사명감을 갖고 우리말을 사랑하시는 많은 청취자들에게 바르고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해 나아겠습니다.”

박지영 작가는 1996년 9월부터 현재까지 KBS 제1라디오 <바른말 고운말> 작가로 활동하며, 국민 언어 순화와 고품격 한국어 확산 보급에 기여해 왔다. 틀리기 쉬운 표현과 신조어, 폭력적 언어의 문제점과 아름다운 한국어 등 시대가 요구하는 다양한 한국어 원고를 25년 넘게 작성하며 국민 언어 개선에 큰 역할을 해왔다. KBS 제1라디오 <바른말 고운말> 프로그램은 매일 아침 06:56~58에 본방송을 시작으로 하루 3번 방송된다. 특히 주요 시간대 앞뒤에 편성돼 많은 국민들에게 고품격 한국어 사용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박지영 작가는 1988년 3월부터 2020년 퇴직하기 전까지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 센터 교수로도 활동하며 외국인에게 바른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지대한 공로를 한 바 있다.

클럽상

대구CBS 지영애



“아나운서 30년째 되는 뜻깊은 해에 큰 상을 받아 그 영광이 더욱 큼니다. 늘 최고일 수는 없겠으나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방송을 해왔습니다. 항상 칭찬과 응원을 아끼지 않은 동료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앞으로도 마이크 앞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영애 아나운서는 1992년 CBS 입사 이후 <지영애의 행복한 아침> <나의 기쁨, 나의 찬양> <라디오 세상 읽기, 뉴스필터> 등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또한 '살롱 음악회' 개최와 '말하기 특강', 각종 지역 사회 봉사와 시각장애인 행사 지원, 목회자 스피치교육 등의 재능기부 활동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현재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대구 시민 모임'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2021 한국아나운서대상 부문별 수상자

대상	SBS 신용철
클럽상	KBS 홍소연, 대구CBS 지영애
장기범상	MBC 낭독회팀, KBS 박지영 작가
특별상	SBS故김태욱
앵커상	JTBC 황남희, BBS 오승진
스포츠 캐스터상	KBS 남현종

TV 진행상	
시사	KBS 이승현, KBS 윤수영
교양	TBS 김혜지, MBC 이진
예능	SBS 이윤아, MBC 서인
라디오 진행상	
시사	CBS 박재홍, BBS 정준영
교양	cpbc부산 김현지, febc포항 정인숙
음악	TBS 황진하, CBS 백원경



회 | 원 | 동 | 정

이규향 (전 KBS), <가요무대> 출연



10월 22일, 김동건 고문이 진행한 KBS 1TV <가요무대>에 출연해 '검은 장갑'을 열창했다

1961년 입사한 이규향 회원은 1968년 가요 '네잎 클로버'를 취입, '벨벳 보이스-한국의 팻분'이라 불리며 그해 가을 무궁화대상 신인가수상을 수상한 최초의 아나운서 가수이다.

박찬숙 회장, 김규홍 (전 KBS) 책임 운영위원 트러스트포럼에서 공로패 각각 수상



박찬숙 회장이 10월 10일 오후 서울 중구 퍼시픽 호텔에서 열린 제6회 트러스트포럼(회장 이종철, 사무총장 문무일)에서 트러스트포럼 본부로부터 기반 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제1호 배지와 함께 공로패 수상자란 영예를 안았다. 11월 26일에 개최된 제7회 트러스트포럼에선 김규홍 책임 운영위원이 공로패를 수상했다.

트러스트포럼은 '지속적인 열린 대화', '신뢰 역량 계발', '진정성 회복' 등을 기치로 신뢰와 역량을 갖춘 청년 리더 배출을 위해 2020년 10월 창립됐다.

박선영 (전 MBC), 물망초 음악회 개최



'2021 물망초 정기음악회'가 12월 1일 여의도 영산아트홀에서 열렸다. 사단법인 물망초(이사장 박선영)가 탈북 청소년과 국군포로 등을 위해 개최하는 음악회로 올해는 탈북 여성으로 구성된 '물망초합창단'의 합창과 색소폰 4중주 '캐롤과르텐 앤'의 크리스마스 캐롤 연주 등 관중들과 호흡을 같이 하는 흥겨운 무대를 연출했다.

'아나운서 최규열전' 열려



박경숙아트연구소가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포항 꿈틀로내 다락방미술관에서 '포항 근대 지역 방송의 전설, 아나운서 최규열' 전시를 개최했다.

지난 7월 21일 향년 84세로 작고한 최규열 아나운서의 방송 자료 중 1960년대의 역사적 사건과 오지 생방송 증계 자료 30여 점, 소장 미술 작품 일부를 전시해 지역 문화 발전에 헌신한 고인을 추모하며 지역 문화사를 재조명했다.

'아나운서 이종태입니다' 출판 축하 모임



11월 14일, 박기만, 이계진, 김윤한, 박종권 회원 등 KBS 출신 회원들이, 세 번째 수필집을 펴낸 이종태 회원의

'아나운서 이종태입니다' 출판 축하 모임을 주선했다. 전 작인 '어리비기'에 '방송 관련 글이 적어 아쉽다'는 주변의 의견을 듣고, 출간 1년 만에 새로운 에세이를 펴낸 열정과 노고에 대해 축하의 마음을 모은 것이다.

김성길 (전 KBS), 코이카 한국어 교수요원으로 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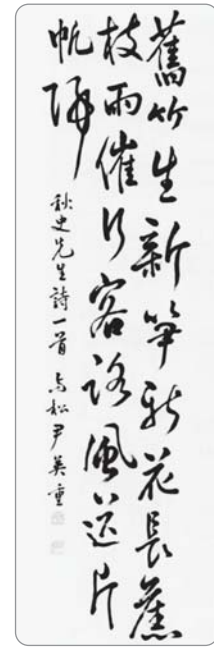
11월 26일,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 한국어 교수요원으로 선발돼, 베트남 다낭 상업대학교에서 한국어 수업과 한국 문화·미디어 관련 교육도 담당할 예정이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6개월 정도 국내에서 원격 수업으로 진행한 후 현지에 파견돼, 대면 수업을 하게 된다. 김성길 회원은 언론학 박사로서 한국어교원 자격증과 문화해설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중국 유학생 대상 한국어 수업 봉사활동도 하고 있다.

유지현 (전 SBS), 번역서 출간



『내 기분은 내가 결정합니다』를 번역해 11월 1일 출간했다. 기분대로 살아가다 후회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기적의 맞춤형 감정 지침서로,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여성들의 말> 창설자인 로렌 마틴(Lauren Martin)의 소구력 있는 이야기를 7가지 주제로 정리한 책이다.



여송與松 윤영중(전 KBS, 서예가) 우전禹田 맹관영(전 KBS, 문인화가) 국제난정필회 서울 전시회 참가



11월 24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개최한 국제

난정필회 제37회 서법전에 각각 추사 시詩(상단 좌측), 문인화를 출품했다.

국제난정필회는 한국, 일본, 대만의 서예가들이 1986년에 결성한 국제서법교류 NGO 조직으로 매년 회원국이 돌아가며 전시회를 주최하고 있다.

김주혜 (전 KBS) PCAF 공모전 우수작품상 수상



(사)한국서화협회가 주관하는 제43회 PCAF(Paintings Calligraphic Art Festival) 공모전에서 서예 부문 우수작품상을 수상했다.

홍대 대학로 아트센터에서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전시 후, 마지막 날 오후

2시에 시상식이 열렸다.

| 알 림 |

고맙습니다

발전기금



정미정 (전 KBS) 90만 원 김윤한 (전 KBS) 50만 원 홍우창 (전 TBC) \$1,000 박찬숙 (전 KBS) 50만 원 김주혜 (전 KBS) 30만 원

광고 유치

박찬숙 회장
골든듀 300만 원

연회비

정미정, 김주혜, 정도영, 임성민, 이장우, 조길자
(9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입금순)

수고하셨습니다

유혜빈 12월 1일 창원FEBC 퇴사
김진현 12월 1일 TBS 퇴사
손범규 10월 31일 SBS 퇴사
박찬민 10월 31일 SBS 퇴사
최기환 10월 31일 SBS 퇴사
이병태 9월 30일 KBS 정년퇴직
박서정 6월 30일 KBS 정년퇴직



정영호 회원이 미주 회원 근황을 소개합니다

김용현 (전 MBC)



『김용현의 평화로 가는 길』 출판기념회가 10월 13일 미국 LA 용수산회관에서 열렸다. 김용현 회원(65년 MBC 입사)이 국내외에서 활동했던 '민주화 운동과 평화운동'을 정리한 책 출판기념회에는 LA 박정재 총영사 등 8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김 회원의 부인 이옥진 회원도 MBC 아나운서(71년 입사) 출신이다.

김미희 (전 KBS)



LA 라디오서울에서 저녁 뉴스 프로그램(월~금, 오후 5시부터 7시까지)을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글렌데일에 사는 최숙경, 서동숙(전 KBS) 아나운서 등과 자주 만났으나 지난 5월 이후 못 만나고 있다. 한편 서동숙 아나운서는 라디오서울에서 은퇴해 쉬고 있다.

맹(조)경원 (전 DBS)



LA 연세대 동문 합창단 '연세콰이어' 멤버로 활동하며 교회에서 하프와 디지털 혼, 하모니카 등의 연주 봉사를 하고 있다. 음대에서 기악을 전공한 맹경원 회원은 여러 악기를 연주하면서 취미생활을 할 수 있어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도 바쁘게 생활하고 있다.

남(명)영화 (전 KBS)

오랫동안 근무했던 은행에서 올해 8월에 은퇴하고, 15년 전에 근무했던 LA카운티 정부 공무원으로 재취직돼 11월부터 근무하고 있다.

김미영 (전 MBC)

2019년 10월에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고 매일 외손자를 돌보며 생활하고 있다. 돌아보니 2020년 초 한국을 방문해 47년 만에 진명여고 동창들을 만나 회포를 푼 것이 행운이었다고 한다.

“사진 한따디”

동아방송 <유쾌한 응접실>



필자(전영우 고문, 앞줄 왼쪽 두 번째)가 양주동 박사, 이서구 선생 등 단골손님과 함께 공개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DBS 동아방송은 1963년 4월 25일 개국해, 1980년 11월 30일 '언론 통제'로 종언을 고고한 민간 라디오 방송이다. 호출부호 HLKJ, 주파수 790KHz, 출력 50KW로 서울 및 중부권 일원을 가청구역으로 방송했다. 동아일보사를 모태로 탄생한 동아방송은 동아일보 사시를 주지주지로 삼았는데 그 주지는 ①민족주의의 지지, ②문화주의의 주창, ③민족의 표현기관임을 자임하는 것이었다.

동아방송 개국과 함께 18년간 대표 프로그램의 하나였던 라디오 토크쇼 공개방송 <유쾌한 응접실>(사회 전영우/ 연출 박재권·안평선)은 당대 학계의 권위자 양주동 박사를 비롯해 극작가 이서구 선생, 김두희 교수 등이 단골손님으로 출연해 재미와 빛을 더했고 1969년에는 제1회 문화공보부 방송 프로그램 전국 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교양에 바탕을 둔 오락 프로그램의 효시로 각광을 받았다.

사진, 글/ 전영우 고문

우리말 다듬기

힘내라, 한국어! ⑭

착각하기 쉬운 한국어 이중모음의 발음에 대하여



김상준 (전 KBS) 언문학 박사

우리말 이중모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양식'을 발음할 때 [이양식], 경기(競技)도 [기영기]로 하는 경우가 있다. 과거 국어학계의 원로 한 분은 '완성'을 발음할 때 'ㅇ'와 'ㅏ'를 발음해서 '오안성'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것은 한국어 이중모음의 성격을 모르는 데서 나온 현상이다.

표준 발음법에서는 한국어의 단모음(monophthong)을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10개로 규정하고, 이중모음(diphthong)은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11개로 규정했다.

이중모음을 11개로 했으나 엄밀한 의미에서의 이중모음인 '모음+모음'은 'ㄹ' 밖에 없다. 나머지 10개는 '반모음+모음'이다. 여기서 반모음(半母音, semivowel)은 IPA(국제음성기호)로 'j'와 'w'로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반자음(半子音, semiconsonant)이다.

그래서 양식[jaŋcɨk]의 '야'는 반자음 'j'와 모음 'a'가 합해진 것이고, 완성[wansʌŋ]의 '와'는 반자음 'w'와 모음 'a'가 합해진 것이다. 그러나 의사[wɨsa]라는 말은 모음인 'ㅜ'와 모음 'i'가 합해진 확실한 이중모음이다. 음성기호

에서 왼쪽 점(.)은 첫 음절의 악센트 표시이다. 『한국어 발음사전』(이규향, 이주행, 김상준. 지구문화사. 2008).

우리말 이중모음 중 엄밀한 의미에서 이중모음은 'ㄹ' 밖에 없다는 말은 북한의 어문규범에도 나와 있다. 최근 이규향 전 KBS 아나운서 실장께서 보내주신 북한에서 발행한 『조선어 어음론연구』(조선 평양. 1995)에는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등은 '반모음'과 어울린 겹모음이며, 'ㄹ'은 두 개의 '모음'이 어울린 겹모음으로 분류하고 있다. 남한에서의 이중모음을 북한은 겹모음으로 부른다.

우리말 이중모음 중 'ㄹ'은 다른 이중모음들과 달리 발음이 어렵다. '의사, 의혹, 의회' 처럼 첫음절에서만 완전한 모음인 '의'가 가능하다. '상의, 하의' 등 둘째 음절은 'ㅣ'로 나고, 자음과 합해진 '희망, 무늬' 등의 'ㄹ'은 '이'로 소리가 나는 것이다. 또한 조사 '의'는 '에'로 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민의당'이 2016년 2월 2일 창당될 당시 발음이 '국민의 당'이나 '국민에 당'이냐로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대부분 '국민에 당'으로 불렸었다. 2020년 2월 17일 창당한 '국민의힘'은

'국민에힘'으로 자연스럽게 발음하고 있다.

'ㅑ, ㅓ'와 같은 이중모음에 비해 모음 두 개가 합해진 'ㄹ'은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나, ㄹ'은 [wa], [wʌ]로 첫 발성에서 나오는 'ㄹ'은 자음의 성격을 가진 반모음 [w]이다. 'ㅑ, ㅓ'도 [ja] [jʌ]로 첫 발성에서 나오는 반모음 'ㅣ'가 자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경우는 사실 반모음(半母音, semivowel)이 아니라 반자음(半子音, semiconsonant)이라고 해야 한다.

참고로 영어 관사 'the'는 자음 앞에서 [ðə], 모음 앞에서 [ði]로 난다. 클리프 리처드의 'The Young ones'의 The는 Young[jʌŋ]의 초발성이 [j]로 자음이어서 [ðə]로 난다. 'The World Cup'의 The도 World[wɜ:ld]가 자음 [w]로 시작되기 때문에 [ðə]로 난다. 그러나 'The Earth'는 Earth[ə:rθ]가 모음[ə]이기 때문에 [ði]로 난다.

영어 관사 'a'는 자음 앞에 붙고, 모음 앞에서는 'an'이 된다. 그래서 'a World Cup', 'a yard sale(알뜰 시장)'이고, 'an announcer', 'an ocean liner(원양정기선)'이다.

Zoom-in MBC 아나운서국



MBC 아나운서국은 매년 한글날 특집 다큐멘터리를 직접 제작하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아름다운 우리말과 글을 지키고 가꾸고자 하는 시대적 소명을 프로그램 제작으로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올해에는 다큐멘터리 제작과 함께 디지털 소유권을 갖는 훈민정음 해례본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를 제작한 후 유료로 배포했으며, 판매 수익금을 사정이 어려운 어린이의 수술 지원금으로 기부했다. 프로젝트를 진행한 MBC 김정근 아나운서 부장을 이현우(전 MBC) 편집위원이 만났다.

올해도 한글날 특집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지요?

올해는 (사)국어문화원연합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찬을 받아서 총 3편을 제작, 방송했습니다. 외래어 대신 쉬운 우리말을 쓰자는 취지를 살린 애니메이션 <우리말 바로 쓰기>와 4차 산업 시대에 한글의 역할과 한류 물결을 타고 한글이 세계어로 나아가갈 가능성을 알아본 다큐멘터리 <말의 미래>, 그리고 세대 간 비어, 단축어 등의 사용으로 언어 소통의 문제를 관찰 토크 형식으로 풀어낸 <우리 통역이 필요해> 이렇게 3편입니다.

방식으로 진행했어요. 제작된 NFT파일은 세종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해인 1446년에 2021년 문화방송 아나운서들이 낭독했다는 의미를 더해 총 3,467(1446+2021)명에게 배포했습니다. 제작사의 플랫폼을 통해서 신청자에게 '1위믹스'라는 가상화폐로 기부금을 받고 배포했는데 저희가 준비한 물량보다 더 많은 신청자가 몰려서 선착순으로 판매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지난 10월 '1위믹스'가 2000원 전후의 가격이었었는데 한 달 만에 27,000원대에 거래가 되더라고요. 저도 그때 하나 소유할 걸...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수익금은 인공 달팽이관 수술과 재활이

요즘 젊은 세대들은 물론 미디어에서도 단어들을 즐겨 쓰는 경향이 있지요. 특집 프로그램의 제목이 인상적이군요.

다양한 사례를 가진 가족들을 취재하고 그 가족의 일상을 스튜디오에서 관찰한 후에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보려고 했어요. 스튜디오에는 언어 및 소통 전문가 박재연 소장, 개그맨 오지현, 인기 유튜버 헤이지니, 10대 배우 이재은 양이 함께 이야기를 나눴고요. 가족들의 사례를 보면서 단축어, 비어가 그저 잘못된 언어라고 말하기 전에 특정 세대와 인물이 그 말들을 왜 사용하려 하는지 그 이유를 먼저 생각해 보자고 접근하는 방식이 좋았어요. 그래서

MBC 아나운서국, 훈민정음 해례본 NFT 제작!

대체 불가능 토큰

블록체인 기술을 다큐멘터리 제작과 연계해서 추진한 공익사업 얘기를 먼저 듣고 싶네요.

이번 다큐멘터리는 <말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방송됐는데요. 우리말과 한글의 특징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 시대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중에 아나운서들의 음성과 영상을 대체 불가능한 디지털 방식으로 기록, 저장하는 NFT를 활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NFT라는 것이 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란 뜻으로 희소성을 가진 디지털 자산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문화방송 스물여덟 명의 아나운서들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낭독하고 NFT로 제작해서 배포해보기로 한 거죠. '위 메이드'라는 회사가 이 아이디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다큐멘터리 방송 일에 맞춰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메타버스 시대에 걸맞는 프로젝트였네요. 수익금도 좋은데 사용했다고 들었습니다.

원래는 공식 경매를 통해 판매하려고 했는데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문화방송의 콘텐츠를 '위 메이드'에게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기부하는

필요한 어린이 두 명을 지원하는데 사용되었어요. 예전부터 아나운서들이 재능을 기부하는 낭독회에 시각장애인을 초대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듣는데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큐멘터리와 함께 제작한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얘기도 궁금합니다.

네, 애니메이션은 작년에 이어서 (사)국어문화원연합회에서 제작 지원을 받아서 진행했는데요. 과거에 MBC에서 큰 인기를 얻었던 드라마와 시트콤을 애니메이션으로 짧게 제작해서 그 내용 안에 외래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 쓰자는 내용을 담았어요. 영화 애니메이션만을 제작했던 '연필로 명상하기'라는 제작사와 함께 진행했는데요. <커피 프린스 1호점>, <안녕 프란체스카>, <거침없이 하이킥>, <베토벤 바이러스>, <환상의 커플> 이렇게 다섯 편을 5분 내외의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고 인물 연기 더빙을 모두 MBC 아나운서들이 직접했어요. MBC 홈페이지에 가서 <MBC 한글날 특집 우리말 바로 쓰기>로 검색하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제작물은 비어, 단축어 등의 사용으로 세대 간의 소통 문제를 겪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문제와 해결 방법을 같이 고민해보는 내용인데요. <우리 통역이 필요해>라는 제목으로 제작되었어요.

이해를 먼저하고 사용하는 말 중에 누군가를 비하하거나 피해를 주는 의미가 담긴 말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정보도 담았고요. 어르신을 비하하는 '틀딱'이나 대중문화를 잘 모르는 사람을 '문쩐' 등으로 부르는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표현이자 사용하면 안 되는 말들이니까요.

아나운서들이 제작하는 <우리말 나들이> 프로그램도 역사가 오래됐죠?

네. 강재형 아나운서가 프로그램을 기획한 이후에 1997년부터 문화방송을 대표하는 우리말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24년째 방송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강 아나운서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작년엔 한글 발전 유공자 정부포상, 문화포장을 받았어요. 그 외에도 사내에서 분기마다 우리말 위원회를 개최해서 내외부 전문가와 함께 다듬어 써야 할 분야별 우리말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고 결과를 사내 곳곳에 게시하여 방송을 제작하는 동료들이 바른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말 나들이' 프로그램으로 제작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4차 산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AI음성인식, 메타버스 등의 분야에도 아나운서가 할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 선배로서 정말 보기 좋고 든든했습니다. 우리 멋진 후배들의 다양한 활동, 늘 응원하겠습니다.



방 | 송 | 가 | 소 | 식

KBS 48기 신입 아나운서 채용



임지웅 홍주연 김진현

2년여 만에 진행된 공채에서 신입 아나운서 세 명을 최종 선발했다. 48기 임지웅, 김진현, 홍주연 아나운서가 주인공이다.

임지웅 아나운서는 전주 MBC와 YTN 등에서, 김진현 아나운서는 강원민방과 TBS 등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SBS '2021 희망 TV' 연속 방송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국민 희망 프로젝트 '2021 SBS 희망 TV'를 11월 19, 20일에 연속 방송했다.

최영아 아나운서와 김주우 아나운서가 각각 1-5부와 6부 MC를 맡아 진행한 '2021 희망 TV'에서는 25년간 이어온 캠페인을 돌아보고, '보호 종료 아동'과 '시청각 장애 아동' 돕기, 맞춤형 휠체어 500대 지원을 위한 '드림500 프로젝트'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방송됐다. 따뜻하고 매끄러운 진행을 보여준 두 아나운서는 코로나19로 고통 받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을 남겼다.

CBS 아나운서부, 성탄 연극 제작



아나운서부가 올해도 성탄 연극을 무대에 올린다. 지난해 원작 '오 헨리의 크리스마스 캐롤'을 시대상에 맞게 각색해서 유튜브 연극으로 제작했던 아나운서부가 올해에는 오스카 와일드의 동화 '행복한 왕자'를 제작한다.

14명의 아나운서가 연출과 배역을 맡아,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고 나눔의 행복을 알려주고자 했던 원작의 스토리를 무대에서 재현한다. 작품은 유튜브 'CBS 조이 채널'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TBS 아나운서팀, 국무총리 표창 받아



아나운서팀이 한글날을 맞아 진행된 2021년도 한글발전유공 포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TBS 아나운서팀은 1997년부터 24년간 TV/라디오 프로그램 <우리말 고운말>을 제작·진행하고, 도서 『우리말 고운말』을 16회 출간해, 기관, 언론사,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배포하는 등 바른 우리말 쓰기와 공공 언어·교통 언어 순화에 기여해왔다.

OBS 가을 개편, 뉴스 진행자 교체



11월 1일, 가을 개편을 맞아 일부 뉴스 프로그램 진행자가 교체되었다.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이슈를 살펴보는 <뉴스 오늘, 오후 4시 30분>은 유영선 아나운서가, 메인 뉴스인 <뉴스 중심, 오후 7시 30분>은 유진영 아나운서가 기존의 김준호 아나운서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인천, 경기 주요 뉴스를 전진 배치하는 <뉴스 라인 인천·경기, 밤 10시 35분>은 김준우 아나운서가, 주말 <뉴스 중심>은 최지혜 아나운서가 각각 담당하고 있다.

MBC '아나운서국 낭독회' 여행 주제로 개최



MBC 아나운서국과 출판사 문학동네가 함께하는 제4회 '2021 아나운서국 낭독회'가 11월 26일 열렸다. '우리가 잠시 미웠던 시간, 읽는 여행'이란 제목으로 열린 낭독회는 '여행' 관련 주제의 책을 아나운서들이 낭독했다. 다양한 수상 경력과 팬층을 소유한 김금희 작가가 출연해, <복자에게> 등 자신의 대표작에 대한 에피소드를 풀어냈고, 본인이 직접 쓴 글을 낭독해 큰 울림을 주었다. MBC 아나운서국은 청중과 시청자에게 감동을 주는 '읽는 여행' 시간을 지속해서 만들어갈 계획이다.

JTBC '위아자 나눔 장터' 서울과 부산에서 열려



중앙일보와 JTBC가 주최·후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나눔장터, '위아자 나눔장터'가 11월 14일과 15일에 서울과 부산에서 열렸다. '위스타트 운동'과 '아름다운 가게', '자원봉사'의 앞글자를 따서 이름을 지은 '위아자 나눔장터'는 2005년부터 17년 동안 꾸준히 이어져 왔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아동들과 기후 위기 취약 계층을 돕기 위한 이번 행사에는 26개 기업과 단체에서 기증한 제품들이 판매됐는데, 스타들과 각계 명사들의 기증품은 온라인 경매 등을 통해 판매되었다. 이 행사의 개장식을 평소 JTBC 사내 봉사단 활동에 앞장서온 김하나 아나운서가 맡아 진행했다.

febc 개그우먼 조혜련 초청 <오늘은 당신 생애 최고의 날>



2021년 11월 30일, 공개방송 <오늘은 당신 생애 최고의 날>이 공개홀과 생방송 스튜디오, 콜센터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이날 공개방송은 CCM 가수 김정석 목사와 양현민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았으며, 상송 가수 무슈고 씨의 미니 콘서트로 시작해 개그우먼 배우 조혜련 씨가 메인 강사로 출연, 웃음과 감동을 동시에 선사했다.

cpbc cpbc소년소녀합창단 정기 연주회 개최



11월 12일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대성당에서 제21회 cpbc소년소녀합창단 정기 연주회를 개최했다. 세 번 연기 후 열린 이번 연주회는 코로나19 이후 주교좌 명동대성당 대면 공연으로는 처음인 만큼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킨 가운데, 김지현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됐다. 관객과 신자들은 cpbc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성가를 한동안 듣지 못했는데 합창단 노래는 위로가 된다"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BBS <이효주의 싱싱라디오>, 불교언론문화상



<이효주의 싱싱라디오>가 11월 24일 열린 '제29회 불교언론문화상 시상식'에서 라디오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당신이 보살', 골목상권 응원 프로젝트 '우리 동네 사장님', 인간관계 상담 시간 '슬기로운 생활일기' 등의 코너로, 코로나 19로 힘들어하는 청취자들에게 활력을 주었다는 평을 받았다. '불교언론문화상'은 불교 문화를 통해 건강한 사회 발전에 기여한 작품을 선정해 매년 시상하고 있다.



문의 1588-6576 | www.goldendew.com

Romantic walk in the garden

Golden dew